

‘상생경영’ 브랜드의 조건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다른 개인 창업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확인해 봄아 할 조건들이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은 다양한 창업조건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봐야 한다.

부분 창업자들은 유명한 브랜드가 성공창업을 담보한다고 믿는 경향이 많다. 물론 브랜드의 인지도나 상표에 대한 의숙함이 초기 운영 시 고객들의 인지도나 흡입력을 증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유명도가 유망함과 경비로 하자는 않는다. 갑질하지 않고 상생경영을 추구하는 성실한 브랜드의 조건을 살펴보자.

첫째, 가맹점 지원인력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탑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상생하는 지원시스템이다. 고로 전문 지원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적 경영 분석능력, 마케팅 지원능력은 필수 사항이다.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가맹점과의 상생은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는 회사의 모토로 전체 직원들이 프랜차이즈 지도사, 서비스경영 지도사, 수퍼바

이져 지도사, 상권분석 전문가 등 관련 자격증을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효율적 직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가격의 원장 가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가격은 소비자의 충성고객 전략 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과 계절, 경쟁관계를 무시한 일률 가격제는 오히려 가맹점주의 생존권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전체 상품 중 70%는 일률 가격을 적용하되 나머지는 입지와 경쟁강도 등을 고려해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상생적 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세탁전문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는 지역별 서비스 가격의 단계별 차등적용을 실시하며 고객반응이 우수하다. 품목별, 요일별 지역의 경쟁력과 계절별 지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별화는 고객의 선택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서비스의 만족을 극대화 하는 좋은 경영략이다.

셋째, 고객 맞춤형 개설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보통의 브랜드 개설기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창업자의 환경과 자금 그리고 상권의 특징에 따라 고객 맞춤형 개설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만 협치적 상생관계의 상호 호환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치킨전문점에서는 고객의 개설조건을 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자금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개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집기와 시설을 재활용하는 이코노믹 창업은 경기의 하락과 불안한 창업시장에 또 다른 경제적이고 합리적 창업지원 사례이다.

넷째, 점포회생프로그램과 폐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역할과 지원을 기본으로 창업자들이 선택한다. 즉 가맹점에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다양한 지원과 해결을 본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중 최고의 지원체계는 가맹점의 심각한 문제 즉 경쟁점포 출현, 상권의 변화, 매출의 급격한 하락, 점주신상의 문제발생 등이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맹계약 만료 시 어떠한 지원과 도움을 본사가 지원 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가맹점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가맹점과 상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창업 시 본사의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다. 우수한 본사와 브랜드를 접경하고 체험을 통해 안정적 창업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버스기사와 근로기준법



기자 수첩

나유리
(파이낸스&마켓부)

“버스 안에서 숨만 쉬고 있을게요.”

최근 유럽 여행을 하던 관광객은 시차와 빠빠한 일정 때문에 휴게소에서도 잠자기 바빴다. 이런 그들을 일으켜 세운 건 가이드, 매번 모든 승객을 화장실 혹은 바람 쐬는 것을 이유로 휴게소 앞에서 내리게 했다.

대부분 관광버스로 이동하는 유럽 패키지여행을 하면 불편하면서도 다른 것 이 있다. 버스기사의 근무규정이다.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 9시간인데, 2시간 30분쯤 달리면 15분 휴식, 이후

3시간을 달리면 30분은 쉬어야 한다.

특히 휴식시간에는 관광객의 볼멘소리가 커지는데 대다수 가이드가 온갖 이유를 들며 버스 밖으로 나가게 해서다. 규정상 기사가 승객의 표를 검사하거나 화물칸에서 짐을 싣는 등 휴식 외의 일을 하게 되면 휴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고생해서 마련한 휴식시간이 도루묵 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 버스 기사의 근무규정이 엄격한 이유는 모두 ‘안전’ 때문이다. 대형트럭보다도 버스의 경우가 더 심한데 대형트럭도 사고가 나면 피해규모가 크지만 버스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도 지난해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연거푸 일어나자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에서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지난 7월부터 주당 68시간 근무하게 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 것.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52시간을 맞추자니 기사급여 문제가 뒤따르고, 급여를 인상하자니 회사가 적자를 벼텨낼 재간이 없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버스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시 한번 위험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요금구조와 급여조건, 근무조건 등을 따져볼 때다. 그리고 전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모든 것이 수반돼야 ‘안전’이 중심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yul115@metroseoul.co.kr

인사

- ◆ 인사혁신처 <전보> ◆ 고위공무원(국장급)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임만규
- ◆ 관세청 <전보> ◆ 과장급 전보 △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이철재 △ 자유무역협정 담관 양영준 △ 기획심사팀장 최재관 △ 국제조사팀장 이민근 △ 서울세관 조사1국장 우현광 △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이병학 △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영우 △ 양산세관장 정광준 △ 관세청 박희규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본부장급> △ 원자력안전본부장 황태석 △ 방사선안전본부장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편집인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 721-9851, 9826
독자센터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40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0147호

장재연 △ 대외교육운영실장 정재웅 △ 면허시험 관리실장 강성천 △ 정보기술실장 진형식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부원장 김광은
- ◆ 신영증권(보직) △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 산업 분석팀장 서정연 <전보> △ Coverage부 차장 김태우
- ◆ 미디어펜 △ 윤광원 세종 취재본부장

부제

▲ 강미경씨 모친상, 박성동씨(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장모상 = 17일 부산 천주교 남천성당 발인 19일 오전 8시. 051-623-4528

▲ 민주홍씨(해남 한국병원장) 별세. 민석진(동명 생명과학원 이사)·석현씨(한화건설) 부친상. 김민선(동명 생명과학원·손서영씨(서울봉은초) 시부상 = 17일 해남 국제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010-2617-9159

▲ 박영훈씨(TBC 기자) 조모상 = 17일 오전 5시 대구 전문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 053-961-4444

△ 윤문조씨(경북 고령부군수) 모친상 = 16일 오후 6시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53-650-4444



신한은행, 추석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신한은행은 주석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21일 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번 행사는 신한은행 전국 22개 지역본부의 5백여명 직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인천 서구 소재 강남시장에서 신한은행 인천본부 이희수 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인천 서구의회 권동식 의원(네번째), 김미연 의원(여덟번째), 한재호 강남시장 상인회장(여섯번째)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활동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KB손보, 충북 정안마을에서 농촌봉사 활동

KB손보는 지난 16일 충북 증평군 정안마을을 찾아 ‘KB희망나눔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농촌 일손 돋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정안마을은 KB손보와 지난 2012년 자매결연을 맺은 1사1촌 농촌마을로, KB손보가 6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KB손보는 매년 2회씩 정안마을을 방문해 모종 심기, 독거어르신 가정 방문, 담벼락 페인트칠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코웨이, 수면산업협·생산성본부와 수면전문가 양성

코웨이는 건강하고 올바른 수면환경 확산을 위해 한국수면산업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수면환경 케어 전문가 양성에 앞장선다. 코웨이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서울 종구 코웨이 본사에서 한국수면산업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건강하고 올바른 수면환경 제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 두번째부터) 노홍식 코웨이 홈케어사업부문장, 김종배 코웨이 환경가전사업본부장, 임영현 한국수면산업협회 회장, 이동규 한국생산성본부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수면환경 제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서경배과학재단, 2018 신진과학자 선정

서경배과학재단은 생명과학 분야 기초연구에서 새로운 연구 활동을 개척한 한국인 신진 과학자 5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 서경배과학재단 신진과학자 증서 수여식’에 참가한 신진과학자와 서경배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우재성 교수, 정인경 교수, 김진홍 교수, 박현우 교수, 주영석 교수, 서경배 이사장

보령제약

안재현·이삼수 대표 선임



안재현 대표



이삼수 대표

보령제약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대표에 안재현 현 보령제약 사내이사를, 연구·생산부문대표에 이삼수 현 보령제약 생산본부장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영효율성 제고,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동을 앞둔 예산 신생 단지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책임임

/박인웅 기자 parkiu7854@